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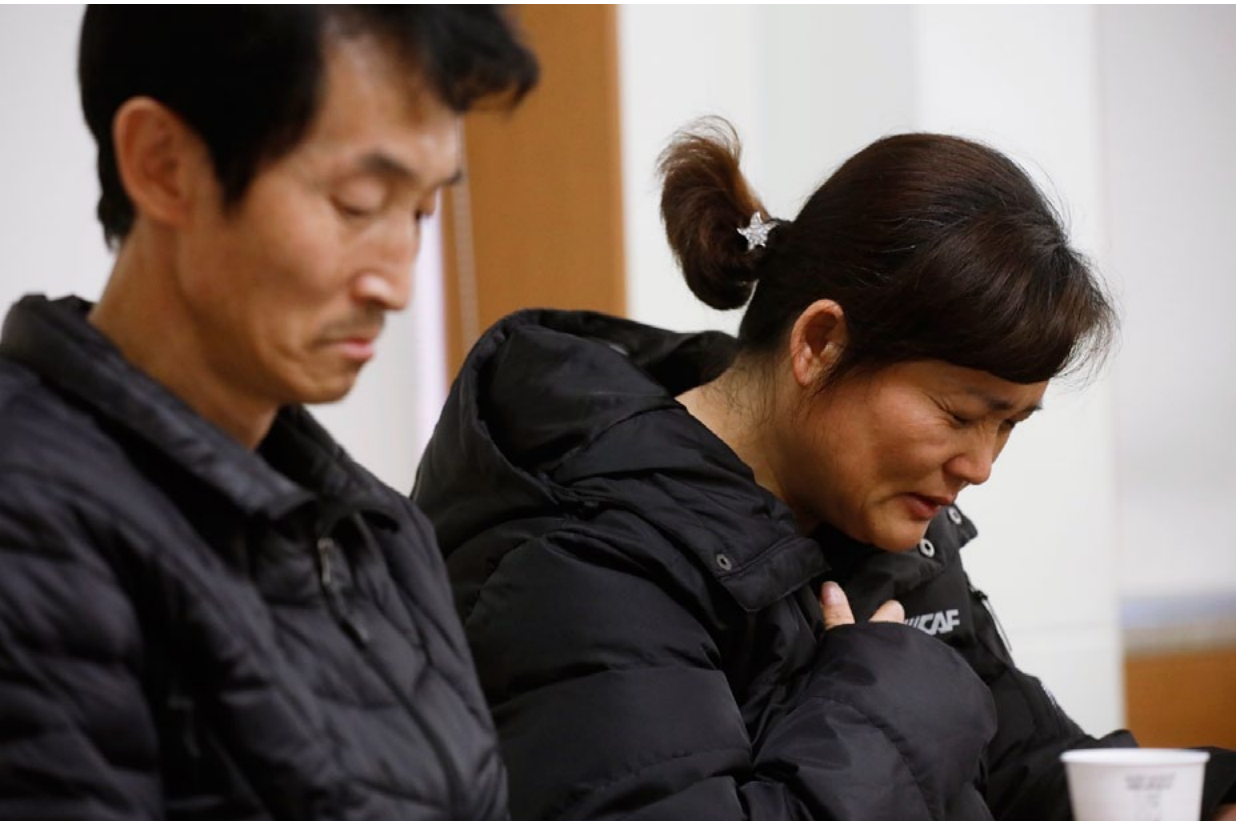
김용균

이룩하는

빛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

제가 어제 아이 일하는 곳을 갔습니다. 처음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도 많은 작업량과 열악한 환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어디 그런 살인병기에 자기 새끼를 내몰겠습니까.
 아이의 동료들에게도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다 죽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일 관련해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책임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브리핑, 김미숙 님

”

발인제

3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진행 : 박준선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기획위원장

조사 박석운 |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장례위원장
 발인축원

노제1

7시, 태안화력발전소 앞 / 사회 : 구재보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조직운구위원장

민중의례
 조사1 박태환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조사2 문용민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
 조가 박 준 | 가수
 편지글 김선호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조합원
 호상인사 최규철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태안지회 지회장

노제2

11시, 남대문 흥국생명 앞 / 노제 선언 및 발언 : 최준식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장

영결식

12시, 광화문광장 / 사회 : 이태의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민중의례
 약력보고 김용균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대의원
 조사1 백기완 |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고문
 진혼무 서정숙, 이삼헌 | 사) 한국민족총협회
 조사2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단식단 6인
 조사3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조시 송경동 | 시인
 조사4 김수억 |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조사5 김혜영 | 故 이한빛 PD 어머니
 조가 장문희 명창 |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전북도립국악원지회
 유족인사 김해기 · 김미숙 | 故 김용균 부모님
 호상인사 이준석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지회장
 조가 입을 위한 행진곡
 헌화

하관식

17시 30분, 마석 모란공원 / 사회 : 박성호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차산위원장

조사 최준식 |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장
 유족인사 김해기 · 김미숙 | 故 김용균 부모님
 호상인사 이준석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지회장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지회장

호상인사

故 김용균 동지는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궂은 일 마다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나자 원청과 하청은 당사자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62일 투쟁한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제 2, 3의 용균이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이 우리가 지적한 그 곳의 설비개선을 했다면, 용균이는 그 곳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튀길래... 아니, 서부발전이 튀길래... 노동자의 목숨을 일회용으로 보는지 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용균이가 없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집회와 투쟁 속에서도, 용균이가 제 곁 어딘가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철용성을 쉽게 부수지 못한다는 것에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지만, 우리 한국발전기술 태안지회에는 100여개의 시민단체와 상급단체, 든든한 가족 같은 태안지회 동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용균이의 어머니, 아버지, 유가족 분들이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해 앞장서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냐면서, 동료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고인이 된 용균이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은 이 자리에 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할 1,100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룰 것입니다.

용균이의 죽음 앞에 빚진 이 마음을 언제 털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 자들은 산 자들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용균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인사

여 기 있는 우리는,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에 속절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발전소에서 벌어지는 죽음은 발주사들의 안전 불감증과 탐욕, 관리감독 기관의 허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사회에 의한 타살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료와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묵묵히 부모의 곁을 지키던 아들 용균이! 성질 한 번 낼 만도 한데 동료들의 투덜거림도 말없이 받아주던 동료 용균이! 겪고 있는 고통쯤은 달게 삭이며 항상 웃으면서 일하던 우리 용균이! 왜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이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지,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故김용균 동지가 세상을 떠난 지 62일입니다.

김용균 동지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한 없이 죄송한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동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노동자로, 아니 동지로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62일 동안 함께해주신 시민단체와 노동자들, 그리고 투쟁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균 동지가 열망한 비정규직 없는 행복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전진하겠습니다. 동지의 한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김용균 동지! 그리고 부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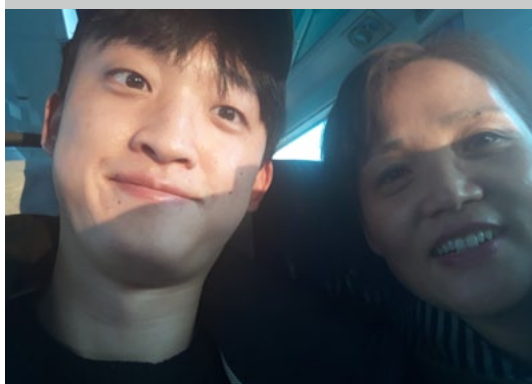
작업장이 안전한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장을 꼭 만들겠습니다.

김용균 동지여!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최규철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태안지회 지회장





“

아들이 아기 때 많이 불러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모르겠고 "잘자라 잘자라 우리 아가야" 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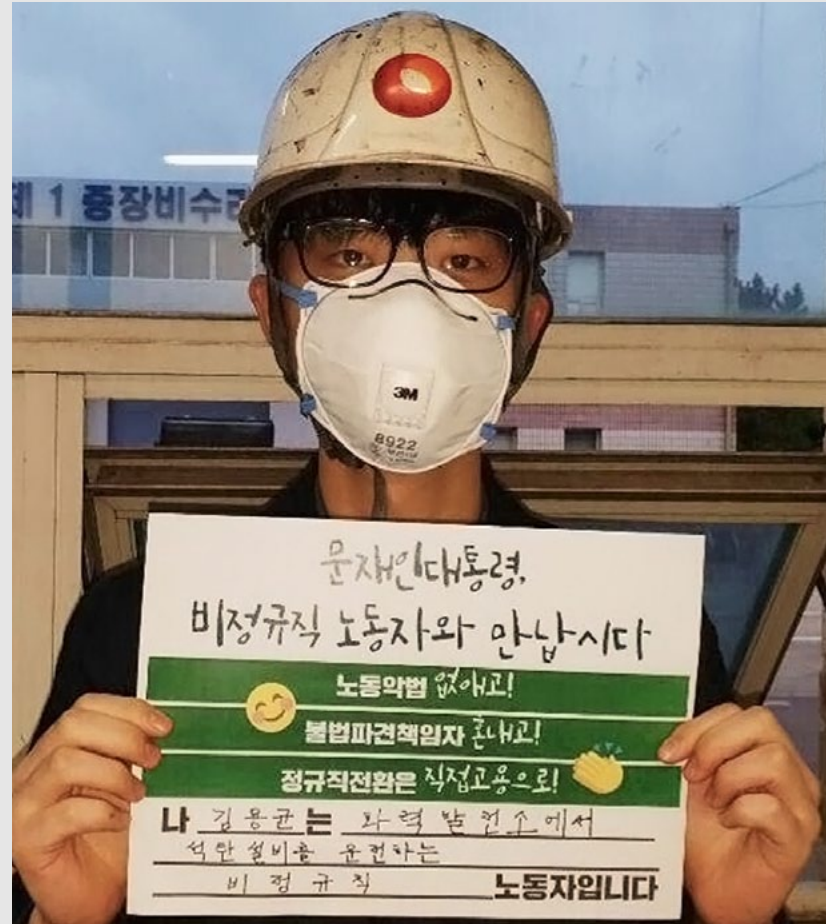
용균이가 아기 때 잠트집이 있었는데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서 이 노래 불러주면
어느새 새근새근 잠 잘 잤었습니다.
지금도 자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도 예뻐서
자꾸만 생각나 눈물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내 아가야.
너가 어디있든 그곳에선 잘 지내길 바라단다.
그리고 더이상 힘들지않고 마음 아프지 않길
이 엄만 간절히 바라단다.

• • •

24살 꽃다운 너의 청춘이 다 피우지도 못한 채
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못한 까닭으로 너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구나

2018년 12월 22일, 1차 범국민추모제, 김미숙 님

”



열사약력

- 1994. 12. 06.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 2018. 09. 17. 한국발전기술 입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파워(TT04C TT05A) 배치.
- 2018. 12. 1.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피켓 사진 촬영
- 2018. 12. 11. 03:23 컨베이어벨트(CV-09E Tail Turn-Over 구간)에서 발견

스물네 살 청년 故 김용균은 빛을 만드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고인은 전기를 만들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위력이 세고 속도가 빠른 컨베이어
벨트를 운전했고, 시설물을 순찰하며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진 석탄(낙탄)을 치웠습니
다. 탄가루 · 이물질이 물을 씻어 내리는 배수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살피며, 석탄을 싣고 움직이
는 운반용 벨트 부품을 점검했습니다.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의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시
설에 이상이 보이면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고인은 4조2교대로 밤낮 일했으며,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8만원 더 많은 임금을 기본
급으로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조사

30년 전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사망은
노동재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2018년,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처절히 알렸습니다.

고인의 짧았던 삶과 죽음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아 왔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지탱해 온 사회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또 다른 희생이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라던 고인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차디찬 시신을 안치실에 두고 겨우내 길거리에서 지낸 부모님,
동료를 잃은 슬픔을 투쟁으로 모아낸 발전소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 함께 연대한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회는 원진레이온 이후 한발 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고인의 죽음을 부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제자리로 돌리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목숨을 담보로 작동하는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과
사회대개혁 투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길을 앞서 밝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6인 단식단) 이상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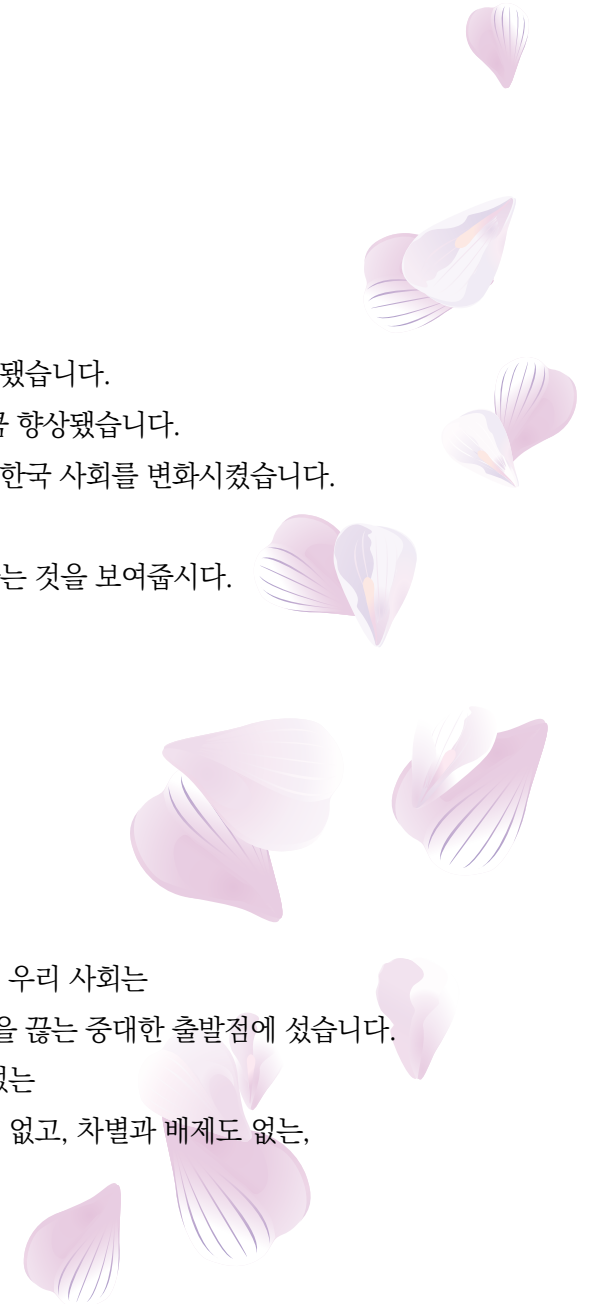
비록 일면식은 없었지만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던 청년, 김용균을 불러본다.
너는 누군가에 빛이 되려고 그 칙흑같이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희망을 꿈꾸었구나!
용균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 비정규직 없고 평등하고 안전한세상으로 나아가렴.
네가 바랐던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할게!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6인 단식단) 최준식 조사

故 김용균 동지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일터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놀라울 만큼 향상됐습니다.
밝은 빛을 만들던 고인은 죽어서 더 밝은 빛이 되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고인에게 큰 빛을 졌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한국진보연대 대표(6인 단식단) 박석운 조사

동지의 희생이 계기가 되고 부모님의 헌신에 힘입어 우리 사회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는 중대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김용균 동지여, 위험의 외주화도 죽음의 외주화도 없는
생명안전 새 세상에 환생하소서. 그리하여 비정규직 없고, 차별과 배제도 없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 세상에 환생하소서.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6인 단식단) 김태연 조사

탐욕스런 자본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초롱초롱한 그 눈빛이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호소합니다.
민영화·외주화 없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김용균 동지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청년전태일 대표 (6인 단식단) 김재근 조사

용균씨와 시대의 고통을 함께 한 청년노동자들이 죽음의 행렬을 끝내겠습니다.
용균씨, 어머님께서 가시겠다고 한,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에 우리들이 함께 할게요.
“너는 나다, 우리가 김용균이다”라는 말,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이제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형명재단 상임이사 (6인 단식단) 이단아 조사

노동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르고,
정치와 자본이 결합해서 노동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1,20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밑불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18.12.11.

김용균은 10일 밤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11일 새벽 3시 경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김용균을 떠올리며 울었다. 그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청 노동자이지만 국민입니다. 제발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절규했다.

2018.12.17.

김용균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은 태안화력발전소 1-8호기 작업중단을 긴급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5대 기본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이 일하던 곳에 직접 방문했다. 그는 아들이 일했던 곳을 보고, “70년대 탄광 같은 곳이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직도 일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빨리 이 곳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2018.12.12.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1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날인 21일부터 시민들과 도심을 행진하고,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김용균이다”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촉구했다.

2018.12.22.

故 김용균 노동자 투쟁 62일간의 기록

2018.12.20 - 12.28.

1년 내내 잠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가족은 국회를 지키며 '더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산안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필리버스터,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이 이어졌다. 다른 산재피해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산안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27일, 28년 만에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다. 28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안법 개정에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라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19.01.12.

광화문 광장에서 4차 범국민 추모제와 동시에 전국 10개 지역에서 김용균 추모 촛불을 밝혔다. 김용균의 동료 20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2019.01.22.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김용균의 시신과 함께 빈소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절박함이었다. 이 날부터 시민대책위 대표단 6인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019.01.09.

KTX 강릉선 탈선, KT 아현지사 화재, 김용균의 죽음의 공통점은 민영화가 부른 참사라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영화 중단, 근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19.01.18.

정부가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한 장짜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정규직 전환 대책은 전무하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면피책'이라고 규탄했다. 1천인의 비정규직 노동자,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동료들이 구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었다.

2019.01.27.

김용균이 죽은지 49일 되는 날, 광화문 광장에서 6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어머니는 제상의 딸기를 보며, 딸기를 좋아하던 아들을 떠올렸다.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정부에 두 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진상규명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이다. 대책위는 19일까지 정부 답변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김용균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어진 5차 범국민 추모제에는 1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여했다.

설 연휴를 앞둔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3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2019.01.03.

노동부 보령지청이 김용균이 일하던 태안화력 9, 10호기 재가동을 시도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청 항의방문, 농성 등으로 이를 저지했다. 4일 오전, 보령지청은 9, 10호기 재가동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9.01.11.

시민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었다.

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천여만 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이다.

2019.01.15.

2019.01.19.

인권실태 조사단이 <태안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를 열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 했다.

2019.01.24.

2019.01.30.

2019.01.31.

김용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가 이어졌다. 사회원로와 조계종 스님들이 함께했다.

故 김용균 노동자 투쟁 62일간의 기록

2019.02.09.

김용균이 죽은 지 62일 만에 그의 장례를 치렀다. 그는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뒷자리에 묻힌다.

정부·여당이 김용균 죽음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적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9일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용균이 죽은지 58일만이었다.

2019.02.05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김용균입니다. 위험을 떠넘기고 증폭시키는 죽음의 외주화는,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던 스물네 살 청년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손피켓을 들고 앞을 응시하는 故 김용균님의 눈은 '삶을 지키려면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故 김용균님을 차가운 냉동고에 모셔둔 채, 고통과 눈물을 가슴에 담은 유가족·동료들과 함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걷고, 굶고, 외쳤습니다. 그 곁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김용균님을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 흐름을 만들었고, 원청이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위험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28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고용구조를 바꾸고 노동조건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적폐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를 바꾸지 못했고,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故 김용균님을 보내드리지만 우리는 고인의 뜻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정규직화를 이루도록, 발전소를 넘어 한국사회 죽음의 외주화를 끝낼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오늘 故 김용균님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기업의 탐욕과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 속에 지금도 죽음의 일터로 향하는 수많은 김용균들을 살리기 위해, 유가족의 눈물과 의지에 연대로 화답해주신 분들과 함께, 조금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꼭 이루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김용균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김수익 조사

지난 12월 11일, 김용균님을 만났습니다. 그 날, 우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꺾이끼이 울었습니다.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전봇대에서 김용균과 똑같이 죽어 간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스물 넷 젊디젊은 목숨이 한 맺혀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바꿨더라면, 이런 세상을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죄스러워 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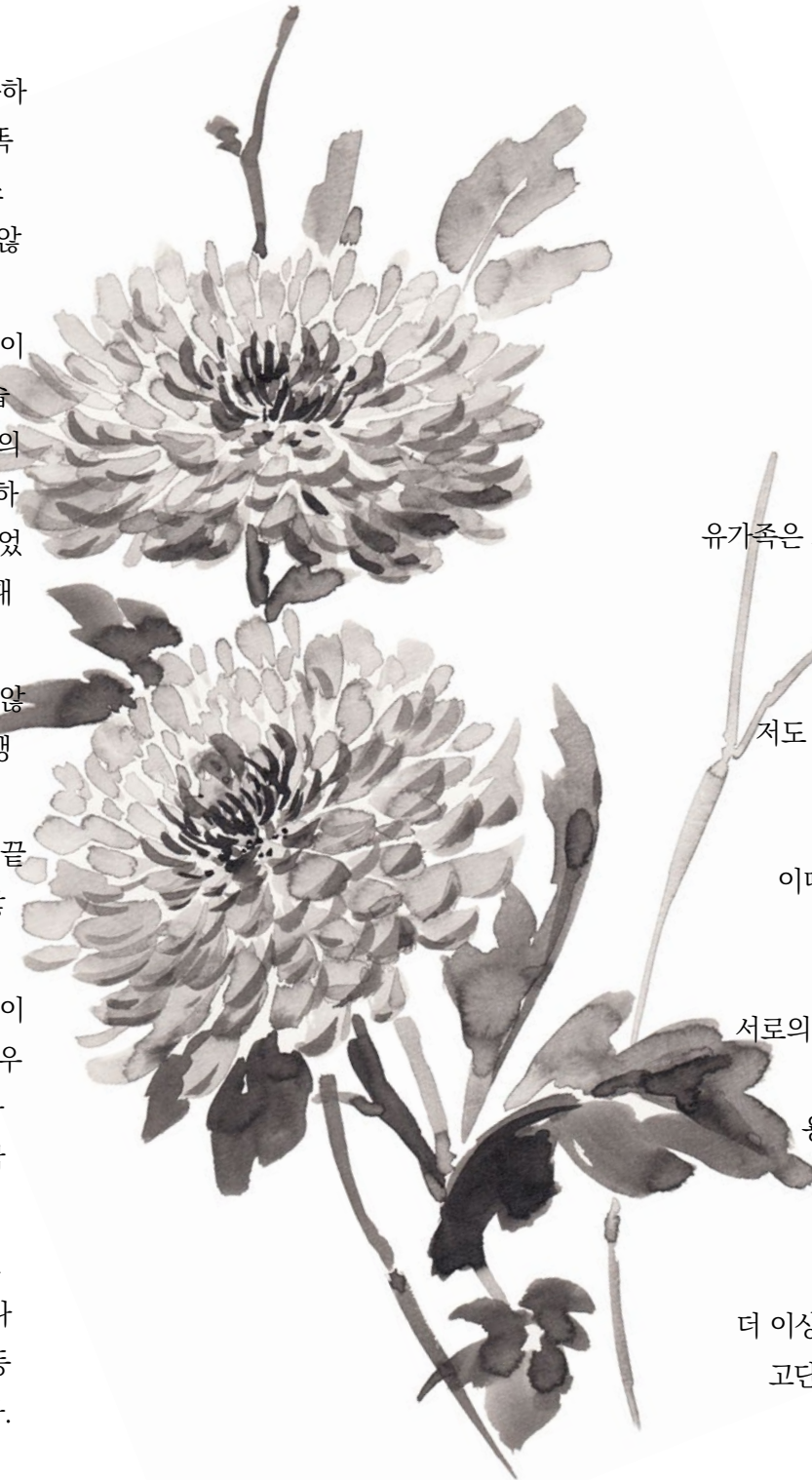
그의 죽음 이후, 내가,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습니다. 김용균의 유언이 되어버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연행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50명 넘는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자동차 하청공장에서 일하다 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대화 대신, 불법을 저지른 재벌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오찬을 즐겼습니다.

용균이 동료들을 살리고 싶다는, 그 부모님들은 자신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더는 당신 아들처럼 죽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의 전부인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용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김용균이 되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 버리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죽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용균을 떠나보내는 오늘, 저는 용균이와의 다시 만나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규직이 되는 희망을 꿈꾸며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우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수많은 김용균들, 온갖 갑질과 차별, 죽음과 대면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수많은 김용균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용균이를 만나려고 합니다.

죽음과 위협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지 않고, 불법파견 사용자가 법대로 처벌을 받는 사회, 노조 하기 쉽고, 비정규직을 맘대로 쓰다 버리지 않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고, 일한만큼 대접 받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매일매일 김용균을 가슴에 안고 싸우겠습니다. 1,100만 비정규직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준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故이한빛PD 어머니 김혜영 조사

스물 일곱 한빛 엄마가 스물 넷 용균에게 바치는 약속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싸워 오신 어머님과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냅니다.
저도 3년 전, 스물일곱의 아들 한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균이의 부모님도 그러시겠지요.
유가족에게는 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함께 멈춥니다. 기억도 멈춥니다.
유가족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죽이며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유가족들은 앞서서 길을 열어왔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울음을 삼키며 앞장서 싸웠습니다.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도 한빛에게 “엄마는 너를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켜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은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살아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이때 손을 잡아 준 것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많은 시민과 청년, 시민단체, 그리고 외로운 싸움에서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보여 주었던 또 다른 유가족들의 힘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혼자보다는 함께하고 연대할 때 슬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용균이네 가족들이 이후 겪어내야 할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할 때 씩씩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회는 존엄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균이와 한빛아!
죽음의 노동 현장에서 먼저 간 아들 딸들아!
더 이상 죽음 없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을 엄마가 약속할게.
고단한 삶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는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잘 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김용균이 김용균에게



1994년 12월 6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24살 되던 해인 2018년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김용균.

나와 동명이인인 스물네 살 젊은 친구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궁금했지. 통성명
을 하며 친해진 우리.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우리를 큰 용균이와 작은 용균이로 불렀어.

기억나니? 태안에서 동료들과 3차까지 술 한 잔하고,
12시를 넘기며 생일이라 하여 다시 축하주로 4차까지 마시던 날이었지.
그 날이 네가 처참하게 사고를 당하기 불과 5일 전이었어.

5일 후 처참한 사고 소식을 전화로 전해들었어.
나는 불과 몇 시간 전 교대근무하며 너의 어깨를 토닥여주었지.
멀어져가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멍멍해.

꿈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일하던 용균이.
매일 늦게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용균이.
그 젊음이 부러웠던 용균이. 작은 용균이,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용균아, 네가 온몸으로 남긴 숙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게.
우리 동료들이 너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게.

용균아, 남아있는 우리 용균이들에게 지켜지지 않는 대통령 공약을
뭉쳐서 해결하라고 숙제를 냈구나.
이제 용균이 네가 저 넓고도 높은 하늘나라로 떠나고 없지만,
비정규직 없는 밝은 세상을 꿈꾸는 크고 작은 용균이들이 앞장서 나갈 거야.

용균아, 너의 어머님과 아버님께 이야기 할게.
우리 용균이는 바람처럼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가며
이곳의 대통령 네 명도 못 한 아주 큰일을 해낸 용사라고.
그곳 하늘나라에서 '반지의 제왕'이 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난 거라고.
그곳이 너무 멀고 힘들어 부모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행복할 거라고.
남아있는 용균이들이 널 그리며 부모님께 때때마다 소식 전할게.

“

무엇보다 제일 중요시 돼야 하는 건 생명인데,
그곳엔 언제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 병기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어서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곡예를
넘나들면서 일해야 합니다.

전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들도 나같이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으면 세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가정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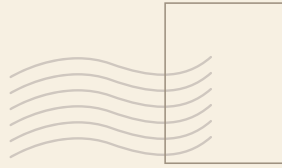
무엇을 해도 행복을 못 느끼고 그냥 허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 5일, 3차 범국민추모제, 김미숙 님

”



용균아



너는 떠났지만 우리는 억울한 너를 보낼 수 없었다.
너를 붙잡은 지 62일째, 오늘에서야 비로소 너를 보내는구나.

두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
태안 촛불집회를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너의 억울한 죽음에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동감하고 함께 해주셔서
이제야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어.
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이렇게 너를 보내기까지 많이 늦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너에게 항상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너를 보내고 나면 지금까지의 피로함과 슬픔 때문에 더욱 힘들지 않으실지 걱정된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신 것처럼 힘든 역경 잘 이겨내시리라 믿는다.
용균이 너도 하늘에서 잘 지켜 봐주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용균이 어머님, 아버님.

저는 용균이와 같은 1파트 팀원인 김선호입니다.
용균이보다 4개월 정도 먼저 입사한 용균이와 같은 신입입니다.
오늘은 용균이를 따뜻한 곳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어머니, 아버지에게 앞으로 닥칠 슬픔을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용균이 사고 후에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방문하신 후 저희 건물에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며,
이 일이 열악하고 위험하니 너희들은 어서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그리고 추운 날 어머니께서 손잡아 주시면서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시고,
저희보다 앞에 나와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자리를 빌어 용균이 동료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용균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조향원 김선호



유가족 인사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반갑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듣기 싫고 말하기 싫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용균이 부모인 우리는 지금도 편안하지 못하고, 원통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국민 추모제나 여러 행사 때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발언을 하면서도 안녕을 묻지 못했습니다.

용균이가 ‘죽음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 너무도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용균이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만든 정부와 한국서부발전이 아들과 동료들에게 사과하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줘서 참담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아까운 우리 아들,
부모에게는 하나 밖에 없는 하늘과 빛과 같은 용균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 아들 용균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지만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부당함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아들과 같은 수많은 비정규직을
사회적 타살로부터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고,
아들 용균이를 위해 추모의 촛불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의 부당함이 정당하게 바뀔 수 있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숙, 김해기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청년의 목은 어디에 뒹굴고 있었는지
찢겨진 몸통은 어디에 버려져 있었는지
피는 몇 뒷박이 흘러 탄가루에 섞였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왜 청년은 밥 한 끼 먹을 틈도 없이 컵라면으로 떼우며 종종걸음을 해야 했는지
왜 청년은 2인1조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혼자 일해야 했는지
스물 여덟 번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는 누가 끌궜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랜턴 하나 지급받지 못한 어둔 막장에서
청년이 갈탄을 주워 담으며 생산한 전기는
누구의 밝음과 재력과 풍요만을 위해 쓰여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몇년간 12명이 죽어 간 죽음의 발전소에 지급된
480억의 무재해보상금은 누가 어떻게 챙겼는지
왜 산재사고의 98%가 비정규 외주노동자들 몫이어야 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국가는 왜 공공부문 사영화를 밀어부쳐 왔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누가 제로로 만들어 왔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왜 국가와 의회가 앞장서 상시지속업무마저 비정규직화 해왔는지
왜 국가와 의회가 앞장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워줘 왔는지
왜 국가와 의회가 앞장서 하청노동자 중간착취를 용인해 왔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누가 다시 그런 현장에서 뺨이치며 일하고 있는지
누가 다시 그런 일터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1100만 비정규직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은 누구의 금고에 빼곡히 쌓여가고 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왜 28년만에야 처음으로 개정될 수 있었는지
중대재해방지법 기업살인법은 왜 통과되지 않는지
불법파견 중간착취 사업주는 왜 처벌되지 않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청년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 온 게 국가인지 시민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
발전 5개사 비정규직 2200명 정규직화 등은 누가 관철시켜왔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왜 촛불정부는 1700만이 밝혀둔 시대의 빛을 꺼트리려 하는지
왜 국회는 모든 촛불입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왜 이 나라는 다시 재벌 관료 자산가 정치인들만이 무한히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가는지

진실을 규명해야지요

이때 한 청년비정규직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어주었는지
한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우리 모두의 폐부를 어떻게 찢어왔는지
왜 없는 이들에게 여전히 세상은 곳곳이 세월호고 구의역이고 태안화력발전소인지

이 실상을, 이 참상을, 이 야만을 규명해야지요

남은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 되어

이 뿌리 깊은 설움을, 이 분노를 규명해야지요

이런 시작이라고 약속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작이라고 어머니를 부둥켜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작이라고 이 불의한 시대에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리 어떤 위로의 말도 찾지 못해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진상을 규명해야지요

수천만 번을 되뇌이며

우리 시대 또 다른 빛이 되어주었던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

유족 고분

부 : 김해기, 모 : 김미숙

강정구 고헌식 고철환 권낙기 권영길 권오현 기세환 김권욱 김금수 김동선 김삼용 김성한 김세균 김승균 김승호 김시현 김영욱 김영호 김영훈 김정숙 김정현 김정현 김종대 김종철 김종철 김준기 김중배 남상헌 노중선 단병호 류진춘 문규현 문정현 민정기 박미준 박석무 박순경 박순희 박재승 박중기 박진도 박홍섭 배다지 배은심 배종렬 배춘실 백기완 백낙청 백승헌 성해용 손병선 손호철 송두환 송영배 신순애 신경림 신승철 신학철 안재웅 안병욱 안영도 안재구 양규현 양재혁 염무웅 오세철 오종렬 유민호 유선근 유영표 유홍준 윤준하 윤한택 이갑용 이귀임 이만열 이부영 이삼열 이소남 이수호 이시재 이애주 이 영 이 윤 이윤배 이창복 이철순 이총각 이흥정 이해동 임기란 임미자 임방규 임성규 임재경 임정인 임종대 임현영 장달수 장임원 장희익 전덕용 전창일 정동익 정병호 정상모 정성현 정순녀 정연순 정재돈 정지영 정현기 정혜열 조성우 조순덕 조준호 조영건 조희주 조희환 주재환 지은희 천영세 최단욱 최병모 최 열 하일민 한국염 한도숙 한상균 한상렬 한승헌 한택근 함세웅 홍세화 황 건 황석영 (이상 136명)

장례위원장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성, 4.16연대 안순호·박래균,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박승렬·정의평화위원회 최형묵, 건강한노동세상 김철홍, 길벗한의사회 김지석,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영건,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노동당 신지혜·용혜인,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박성우, 노동자연대 최영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이용덕, 녹색당 신지혜·하승수, 녹색연합 조현철, 대구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김재훈, 대한불교조계종 해찬·덕조, 문턱없는한의사회 권자옥, 마창거 재산재추방운동연합 이형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귀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민중당 이상규, 반올림 황상기, 부산청년유니온 하정은, 비정규직 100인대표단 차원호,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김소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이사라,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생명안전 시민넷 송경용, 서교연 페미니즘 이론학교 배경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연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심호섭,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시공,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전주희,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신종재·조광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이혜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일과건강 양길승,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강충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이상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한웅, 전국빈민연합 김진수, 정의당 이정미, 주권자전국회의 문국주, 참여연대 하태훈,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김이중, 천주교 남주수도회 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박상훈,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김선실, 청년전태일 김재근, 추모연대 박인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이진숙,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한국발전산업노조 박태환,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환경운동연합 권대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향린교회 김희현,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김형계, 형명재단 이단아, 흥사단 류종열 [충남·서산·아산·태안지역] 노동당 충남도당 김진,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손창원, 민주노총 서태안위원회 신현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이백윤, 서산시민사회 환경협의회 공동대표 신현웅·남현우,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김종현·김순제, 아산시민연대 장명진·박민우, 정의당 서산 대안위원회 조정상, 정의당 충남도당 장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노상철,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용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김중선·김민호·김용기 (이상 94명)

호 상

이준석(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최규철(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태안지회장)

기획위원회

위원장 : 박준선 윤용배 이승철 최영준 한인임
실무위원 : 김경화 김준범 민영기

의전위원회

위원장 : 김성란 김소연 양한웅 이근원 이태호
실무위원 : 김모드 오승희 이종문 이태경 이흥준 한대식 황윤석(이모부님)

치산위원회

위원장 : 박성호 조성애
실무위원 : 권남표 김성수 김용균 김경아 백승호 오상훈 이상욱 왕복근 최정아 김미란(이모님)

총무위원회

위원장 : 강해현
실무위원 : 김건태 김우남 박인서

조직·운구위원회

위원장 : 구재보 김억 민길숙
실무위원 : 공성식 곽노총 곽진경 권순화 권혁상 김봉님 김철운 김한별 박상호 박솔기 박준형 박지영 박효선 송창익 수열 오승은 양규서 이경은 임월산 장현술 정양현 정진화 정찬무 정희선 한상진 홍경민

홍보위원회

위원장 : 김혜진 나기주 이태성
실무위원 : 김보금 김영숙 김형석 박영흠 변백선 장우식 정나위 정재은

문예위원회

위원장 : 박성환 이사라
실무위원 : 김용범 김지영 백일자 신유아

장례위원-민주노총

사무총국 김경자 백석근 윤택근 유재길 봉혜영 정혜경 엄미경 양동규 김연홍 김선민 조경석 김한울 신정옥 김억 장현술 권순화 박효선 한상진 송창익 박상호 박성환 김은기 박은정 이정훈 김수경 류미경 최명선 이현정 이진우 김석 안혜영 이흥준 박정옥 석권호 권익경 백선영 나기주 강우정 변백선 정나위 박혜경 이광규 김미형 이세훈 박용석 박하순 이창근 정진범 손지승 김형석 최정우 우문숙 강상철 이주호 김성란 안진

법률원 우지연 강민주 권두섭 이승민 조연민 이다솜 김영관 정병민 조현주 황규수 박용원 김형규 박미숙 심지훈 이석 고관홍 오승재 장재현 김성훈 주민영 박상수 박다혜 이두규 탁석호 전경화 김두현 장석우 이기범 정준영 박현숙 하태승 김세희 김태욱 박설 허성희 박주영 신선아 김성진 박주아 신인수 최영연 조세화 김중진

금속노조 김호규 신승민 황우찬 김현미 이승열 양기창 송영주 정주교 엄강민 조영미 정일부 이원재 김정규 김상민 신동준 문상환 나경원 정규양 홍지옥 정석원 김현석 김준일 정종희 김정태 문철상 박경선 강수열 두대선 차덕현 정원영 이진락 강상호 김득중 허부영 임한택 박근태 문영섭 남태현 성세경 윤광섭 강동선 강호수 이강문 곽형수 이동석 박경애 박종석 박재우 신길재 도진해 배미순 최정수 홍순호 최지훈 김병봉 정종훈 최현진 정홍형 정혜금 황이라 정진우 김그루 정규양 이기만 윤옥동 이용렬 김영신 김두현 김유진 김혜인 김성학 박동진

공무원노조 김주엽 이상원 이재광 채시병 노정섭 임기범 서정숙 이승애 최현우 고헌식 오정환 정인숙 김대현 이병하 김태성 이경천 김은환 김진수 심우청 김현기 전두홍 이종욱 김수미 제희근 이상일 조석태 박중배 이봉식 우봉석 추인호 이해준 신윤철 김충희 송영섭 백영광 김정수

전교조 권경오 김현진 강신만 노년환 정성홍 장관호 손근자 한은수 김지숙 전희영 김수찬 이용기 김병일 심선화 홍동희 김성미 조연희 김현석 채승필 이상미 문명숙 방정현 하동협 이현복 김기중 장영주 노재하 박미향 문희현 현혜숙 전장근 구성현 허건행 이수미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권정택 임한석 박종렬 정재호 김용섭 이시황 박은하 이상룡 이상용 김상희 박종석 홍영경 김진규 김득중 배태선

교수노조 홍성학 임재홍 김도형 안현호 유병제

대학노조 백선기 김재년 손창원 이계연 임효진 김동욱 박용기 박용준 서형석 이재설 변재욱 천성춘 방세웅 김기일 류시태 정재복 정진우 김민수 박병콜 홍성민 이영준 유양훈 김지수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이흥구 김기범 현희숙 김호정 김용현 유지섭 김태갑 이승현 이희동 민경신 김재국 김기동 이도구 이현주 김지나 표근영 김현정 김금숙 이기철 두성학 정태수 김일영 이경 김영근 서필상 김호열

화성연맹 신환섭 신귀섭 임영국 박현석 장명봉 장경연 김호철 장중수 문상범 백운석 정동길 서진상

여성연맹 이찬배 문종애 최정숙 박종오 진남순

언론노조 김환규 오정훈 신일수 이경호 김연국 윤창현 정남규 한대광 전대식 이종풍 이진성 김영근 박운석 윤석빈 부현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박노봉 정재선 박민숙 한미정 최중진 백소영 오수희 김진경 조혜숙 백영규 최희선 염기용 원종민 박정원 양승준 변미영 최경진 원종화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이선인 강동화 김유진 이문영 김봉진 정대는 정미 도명화 김형수 김성규 김기홍 정인택 이귀진 박철 조용문 김민철 이정아 전규홍 김기성 김성환 이성일 구인석 한성영 소종영

박용규 이영훈 박성철 이미숙 이정민 이정범 이봉근 이남근 임광택 전영아 장석경 최순미 신지훈 김학균 황왕택 박신영 김부영 구자연 손경희 고순원 박영란 김병목 김태진 최지훈 조은영 정영환 홍서영 신현우 박경미 전용학 김인자 박문종 이종찬 김미숙 허은숙 최연택 김용성 박성수 어성희 김성광 홍성인 윤병일 장경훈 임정수 송동환 황규성 감옥자 김정례 홍미숙 차승자 박창규 허문규 김귀화 노건균 김만영 박명복 전순화 곽영숙 이경민 안홍기 조성환 이다화 이대희 김지광 조한호 박보경 설인기 박민호 김범희 박해부 김금수 오동훈 권이숙 언정희 이근욱 이철규 장남철 최만수 한옥수 정인성 이정은 정진식 윤정임 박종호 이완홍 이희순 강영술 정래택 지길영 윤진건 문병철 이금희 장명숙 고임순 송근우 김덕기 안의섭 김미영 김민재 이종석 정명순 임달순 김희상 박범홍 권오석 진숙자 윤해석 이강노 편남희 이양원 양인철 오대성 강창성 민형재 손민수 이춘희 박일현 이익진 강인애 변재규 김갑순 송현구 조태환 김현욱 신소욱 박희

장례위원-공공운수노조

이건복 이미라 이민규 이민화 이상윤 이연순 이영림 이육 이윤호 이은호 이장우 이점자 이정현 이종래 이창도 이향춘 임미숙 임태안 전재효 정정애 조금순 조종래 최상덕 최욱희 최원진 최자경 최정아 최호정 하유숙 허은정 현정희 현지현 황연희

인천공항지역지부 강구홍 권오상 김도하 김정수 김준영 김치훈 박건 박대성 박상민 안희환 오순욱 유희재 이동진 이영재 정해진 홍선표

인천항보안공사지부 김형태 박선희 손원희 오정진 유정탁 정민호 정승용 최봉호 최한수 홍용석

자치단체공무직지부 우해석

전국건설엔지니어링지부 김낙영 나은영 박재범 임민주 조진기 차재업 태기정 황진형

전국공공연구노조곽장영 김남훈 김사혁 김재일 김종유 오수환 원혜옥 윤미례 이경진 이광오 이상우 이성호 임현성 장하루 정민재 정상협 정종길 조유국 최성권 최연택 최호일 한상진 홍민철 황규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소희 안명자 이경래 정영훈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강태경 구슬아 신정옥 정고은 정혜진 홍덕구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이상길 홍태화

전국우편지부 구분승 권혁호 김달영 김선애 김재홍 김진숙 엄정연 유아 윤미경 이말자 이상현 이종원 이종원 이호 정희경 하성호

전국집배노조 고광완 고기병 김호 서재환 정창수 조경훈

전국철도노조 강성규 강영만 강정남 강철 고창식 고태선 고태운 구성민 권기태 권용희 권율 김갑수 김동구 김병삼 김병석 김병주 김병철 김선욱 김성수 김성식 김성철 김세훈 김승현 김영규 김영림 김영철 김용전 김원년 김정해 김종국 김지현 김진래 김찬대 김철규 김철웅 김학경 김한수 김현철 김형균 김형표 류경수 박기택 박상희 박성수 박세중 박정규 박종석 박종선 박종원 박종태 박해철 박찬수 박희권 서재열 서재유 스태일 송하복 신경배 신필용 양원표 어용수 엄길용 엄진형 윤혜영 이경락 이근조 이덕열 이동현 이명위 이상계 이용근 이윤선 이윤호 이종열 이종훈 이종희 이찬복 이철우 이충현 이학용 이형섭 이호건 임관택 임도창 임상혁 임종운 장경우 장재영 전효섭 정병근 정성훈 정원섭 조명제 최명호 최병화 최익수 최정욱 최정호 최종철 최성욱 한은순 홍광택 홍성우 홍영희 홍주현 황상길

전문기술협의회 김미영 남상철 노세호 오승근 이규철 이혜중 정성욱

전북문화예술지부 고양곤 김성택 박미선 이길재

전북지역서비스부 국충곤 김관철 민홍희 박정찬 서경수 성근철 이영일 이장원 이정희 이종길 전길훈 정홍운 최병덕 최치운

전북지역본부 김재역 김재주 명민경 박진홍 박호권 서홍석 이갑삼 이창석 정용재 표영근

전북평등지부 김영이 김준영 박광섭 박광순 박영길 변연수 송미숙 송은주 안희철 유용환 이근애 이민영 이상권 이종복 이진 이태성 이택식 임기환 정용재 조영삼 지순희 천필용 최재우 최중천 한정애 홍성섭

제주지역본부 강수선 고은숙 김경희 김남희 김선영 김성현 김은리 김정일 김현정 김홍철 문도선 문수욱 민삼식 박경민 박진현 신행하 유광래 이규백 이창주 정진택 정진희 최애경 최천일 하은정 홍정자

㈜강원랜드노조 김태중 김미경 김태훈 남수만 박인수 송인태 오석원 이승철 이재철 이준모 이창진 이창형 임재호 장기각 정영희 주재민 최길홍 최승령 현재훈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국도형 이근호 조복훈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서재천 신현구

지자체협의회 강성기 김종열 문부식 박찬만 박훈주 손재선 오순덕 원우석 이종열 장현석 정상화 한광식 홍영기

축산물품질평가원노조 지성환

충북지역본부 강성욱 구철희 권순복 김대은 김명숙 김슬기 김연길 김용정 김준우 김진열 민영선 박상복 박영무 박영이 박재숙 변재민 송지영 신현택 우시분 윤남용 윤남용 윤태호 이경택 이선자 이성형 이연경 이은숙 이재욱 이점숙 이종래 이홍희 이태준 이홍재 장순일 전우실 정만희 정명호 정봉자 정연준 조근희 조성애 하승용 한건희 황경숙

택시지부 김관식 김금희 김기현 김영만 김종현 박귀한 박상근 박종은 송민성 안승혁 이상형 장문성 정지순 최낙현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고주연 금진우 김경분 김경수 김동찬 김영일 김중구 김태형 민호영 박기춘 박인국 박종성 민명희 신문옥 신문옥 오양균 이우정 이태용 장기용 정민수 조성천 조성천 최기학 홍종표

한국가스공사지부 김경인 김수길 김을한 김재역 김진식 김학일 김한술 김홍운 김희정 남궁택 도우진 박철호 박희병 백중현 손동환 안관섭 양철철 이승룡 이진우 이현승 전호주 최경식 하중수 하태성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김영춘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구광모

한국공항공사노조 김광현 김동은 김상진 김장범 김종대 김태영 나종업 노광곤 박미하 이석범 임병철

한국마사회지부 고석근 김선종 김경분 김현준

한국문화재단지부 이동현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강신역 강영훈 김경진 김경훈 김동건 김선호 김용근 김우남 김종덕 문노현 박민수 박제철 박종일 박지용 박현우 서영 서철 손승환 손호빈 신성욱 심덕홍 심상구 양영선 어지훈 오승호 오태종 원도연 유경욱 유근환 유인우 윤준혁 이두희 이상훈 이용철 이원우 이탁근 임진수 장근만 전인배 전휘수 정민준 정승택 조준태 조종연 조창희 최민우 최준성 최희근 한승희 한정호 한창민 홍정민

한국발전산업노조 김동성 김현진 남상화 남윤철 박정규 박태환 변영은 신현규 엄경식 원종범 유승현 이요표 이재백 이태성 제용순 조준성 최우유 황정민 박태환 남성화 김현진 유승현 제용순 신현규 박정규 최우유 남윤철 원종범 황정민 이태성 변영은 이재백 엄경식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가득로 가중현 강규성 강운하 고동순 고영진 고용기 구자현 권인호 권혁상 김경민 김경민 김관겸 김광훈 김규선 김길명 김길호 김도형 김동목 김우경 김민영 김배성 김범락 김보성 김선구 김소광 김승현 김승한 김우환 김정우 김정태 김정훈 김종용 김종협 김주철 김진모 김진성 김태군 김태호 김필환 김형욱 김호석 김홍규 남상무 남주현 남현우 노재우 류광희 류제우 류정식 명용국 문강석 문군철 문두현 문상민 문성현 문용필 문준식 박강표 박건호 김경주 박경환 박봉곤 박상희 박선필 박성호 박윤홍 박진환 백재현 변진영 손기석 손일원 송연수 송옥선 송하일 신재정 심종일 오명남 오병훈 오세경 오중성 유규진 유병오 유성봉 윤선배 윤정일 이경훈 이기열 이래경 이명호 이상대 이상민 이상민 이상룡 이상복 이영재 이원기 이용식 이용재 이원구 이종우 이종현 이준석 이준수 이준혁 이진길 이태성 임대림 임정호 임천희 장대용 장민수 장인섭 전복환 정성원 정수영 정영배 정용배 정정모 정종복 정진수 정필진 조대식 조승기 조승현 조윤희 조철 조한민 조한섭 조한희 조항혁 주정환 지욱연 진치환 차부근 차태진 채기석 천형우 최규철 최기운 최병문 최상현 최성근 최순신 최홍수 최윤호 최원우 최현준 최현대 최형구 한권희 한상근 한용국 한인구 한재현 한성규 합학수 허석 홍원호 황교하 황규철 황문현 황은태 황종민 황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지부 이재욱 최혁 이승용

한국소비자원지부 이선동

한국잡월드본부회 김자영 박영희 이주용 이진형 정인지

한국재정정보원지부 안경호 전연미 정지윤 조성록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 김우정

한국전력기술노조 하진수

한국정보화진흥원노조 전만환

한국조폐공사노조 김창무

장례위원-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김광석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 김성훈 노양욱 문용현 송현정 윤정일 이원희 이원희 이정욱 이태호 임무호 전상휘 정동욱 최순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신갑선

항공연대협의회 고원 김성기 김영곤 심규덕 이석범 지윤현 한성돈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김근영 김동국 김영수 김용주 김재광 김정환 김태영 민병수 박성기 박연수 박재석 심동진 오남준 오윤석 이광재 이기준 이대근 이순홍 이영호 이용정 천춘배 최삼승 홍중후 (이상 총 2,018명)

장례위원-단체

장례위원-공공운수노조

365노동자의 꿈, 4.16 합창단,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4.9통일평화재단, KT민중주지회, KYC(한국청년연합),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감성일반노조, 강민호박태순열사추모사업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무모임(권미경열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광화문TV,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권오복추모사업회,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 기동전자분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길벗한의사회, 김남식선생추모모임,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김종중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 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총남도당, 노동당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노회찬재단, 녹색당, 녹색연합, 녹색평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단국대 의료원지부, 당신지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여성농민회,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평통사, 대우조선지회(이석규,이상모 박진석,박삼훈,최대림추모),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사회지부 경기지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턱없는 한의사회, 민족광장,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보육1,2지부, 민주노동 서태안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동 세종총남본부, 민주노동공공운수사회서비스 보육1,2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앙시수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박선영남태연열사추모사업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정신계승사업회, 박현정등지추모사업회, 반올림, 보건의료노조 흥성의료원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봄꽃장학회,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청년유니온, 부여군여성농민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100인대포단,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이버노동대학,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총남도당,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생태지평, 서경수, 서교연 페미니즘 이론학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산시민사회 환경협의회, 서산의료원지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섬돌향린교회, 성남 4.16연대, 소성리평화지킴이, 수도권지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쌍용차지부, 아산시민연대, 알바노조, 양용찬열사추모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영호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 예수살기,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예술공동체 마루, 오늘과 내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회정신계승사업회, 윤주형열사추모사업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이경동한상운열사추모사업회, 이태창기념사업회,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이윤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현열기념사업회, 이현중이해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일과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근강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순천시 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북 임실군여성농민회,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의당, 정의당 서산 태안위원회, 정의당 총남도당, 정종태열사추모사업회,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정평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조영관추모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진성일민주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 비정규직 김용근 부산청년추모행동, 청년전태일, 최명아추모사업회, 최우혁열사기념사업회, 최종범열사정신계승사업회, 추모연대, 총남서북부노동당강인권센터 새우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통일광장, 통일광장대표,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학습지노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 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청년연대, 한빛교회, 한산발전노조, 한진중공업열사정신계승사업회, 합석현 사상연구회 아일랜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대중공업지부열사정신계승사업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형평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이상 총 233개)

장례위원-공공운수노조

장례위원-개인

가명현, 김기덕, 강경태, 강경표, 강동진, 강명원, 강문신, 강미순, 강민형, 강봉진, 강상구, 강석도, 강선순, 강성욱, 강성준, 강세웅, 강수미, 강수정, 강수혜, 강순희, 강술기, 강신원, 강신표, 강연희, 강영미, 강영복, 강영숙, 강영호, 강유진, 강윤주, 강은미, 강은영, 강정연, 강정주, 강종민, 강지은, 강총원, 강총호, 강현안, 강현숙, 강현희, 강형구, 강혜진, 강희숙, 강화정, 강효정, 강홍중, 강희석, 강희성, 고경희, 고광완, 고광윤, 고금, 고기담, 고기병, 고동민, 고석근, 고이라, 고영환, 고유경, 고은덕, 고은실, 고은정, 고희림, 공계진, 공군자, 공유정옥, 공정배, 광명철, 꺾여람, 광정철, 구광숙, 구미숙, 구자호, 구정모, 구정민, 구정철, 국종애, 권, 영숙, 권경희, 권구백, 권금상, 권대희, 권말선, 권명숙, 권미정, 권민재, 권보라, 권서구, 권수정, 권수진, 권수현, 권순보, 권신윤, 권영국, 권영숙, 권영은, 권오근, 권오연, 권옥덕, 권용범, 권재석, 권정호, 권진성, 권창성, 권태욱, 권태홍, 권태훈, 권혁이, 권혁진, 권훈, 금박은주, 기선, 김익완, 길혜민, 김갑봉, 김강연, 김거석, 김건곤, 김건우, 김경구, 김경민, 김경숙, 김경옥, 김명울, 김경자, 김경준, 김경희, 김계호, 김관식, 김광배, 김광수, 김광이, 김광일, 김광진, 김광호, 김근성, 김귀국, 김규복, 김규원, 김규환, 김금성, 김금옥, 김기성, 김기수, 김기수, 김기연, 김기중, 김기천, 김기흥, 김기흥, 김기환, 김난성, 김남성, 김남용, 김남주, 김내근, 김다은, 김다혜, 김대용, 김대웅, 김대원, 김덕우, 김도영, 김도형, 김도환, 김도환, 김도훈, 김동규, 김동근, 김동수, 김동우, 김동혁, 김동희, 김두림, 김두범, 김두현, 김래곤, 김리아, 김명동, 김명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이, 김명임, 김명철, 김명희, 김명환, 김명희, 김모드, 김문노, 김문식, 김미란, 김미향, 김미분,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정, 김미진, 김미향, 김미하, 김민경, 김민영, 김민윤, 김민재, 김민준, 김민지, 김민호, 김민환, 김민희, 김병희, 김병규, 김병기, 김병동, 김병욱, 김병태, 김보형, 김복동, 김분경, 김삼석, 김상규, 김상군, 김상민, 김상연, 김상은, 김상정, 김상철, 김상패, 김서경, 김서중, 김석원, 김선, 김선경, 김선영, 김교무, 김선실, 김선우, 김선자, 김성근, 김성기, 김성년, 김성덕, 김성자, 김성기, 김성희, 김성민, 김성우, 김성연, 김순재, 김순애, 김순제, 김순만, 김순환, 김시녀, 김시, 김신애, 김신우, 김애자, 김애하, 김양자, 김양현, 김연오, 김연옥, 김연주, 김연지, 김영관, 김영근, 김영길, 김영덕, 김영래, 김영리, 김영만, 김영범, 김영석, 김영순,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춘, 김옥순, 김옥임, 김완수, 김용규, 김용기, 김용래, 김용범, 김용신, 김용운, 김용원, 김용진, 김우정, 김운성, 김원만, 김원식, 김원정, 김

^[1] 장례위원-공공운수노조: 365노동자의 꿈, 4.16 합창단,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4.9통일평화재단, KT민중주지회, KYC(한국청년연합),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감성일반노조, 강민호박태순열사추모사업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무모임(권미경열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광화문TV,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권오복추모사업회,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 기동전자분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길벗한의사회, 김남식선생추모모임,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김종중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 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총남도당, 노동당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노회찬재단, 녹색당, 녹색연합, 녹색평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단국대 의료원지부, 당신지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여성농민회,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평통사, 대우조선지회(이석규,이상모 박진석,박삼훈,최대림추모),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사회지부 경기지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턱없는 한의사회, 민족광장,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보육1,2지부, 민주노동 서태안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동 세종총남본부, 민주노동공공운수사회서비스 보육1,2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앙시수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박선영남태연열사추모사업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정신계승사업회, 박현정등지추모사업회, 반올림, 보건의료노조 흥성의료원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봄꽃장학회,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청년유니온, 부여군여성농민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100인대포단,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이버노동대학,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총남도당,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생태지평, 서경수, 서교연 페미니즘 이론학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산시민사회 환경협의회, 서산의료원지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섬돌향린교회, 성남 4.16연대, 소성리평화지킴이, 수도권지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쌍용차지부, 아산시민연대, 알바노조, 양용찬열사추모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영호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 예수살기,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예술공동체 마루, 오늘과 내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회정신계승사업회, 윤주형열사추모사업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이경동한상운열사추모사업회, 이태창기념사업회,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이윤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현열기념사업회, 이현중이해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일과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근강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순천시 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북 임실군여성농민회,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의당, 정의당 서산 태안위원회, 정의당 총남도당, 정종태열사추모사업회,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정평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조영관추모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진성일민주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 비정규직 김용근 부산청년추모행동, 청년전태일, 최명아추모사업회, 최우혁열사기념사업회, 최종범열사정신계승사업회, 추모연대, 총남서북부노동당강인권센터 새우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통일광장, 통일광장대표,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학습지노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 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청년연대, 한빛교회, 한산발전노조, 한진중공업열사정신계승사업회, 합석현 사상연구회 아일랜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대중공업지부열사정신계승사업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형평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이상 총 233개)

장래위원-개인

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윤, 김윤기, 김윤영, 김윤태, 김윤경, 김은선,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진, 김은천, 김은혜, 김은환, 김은희, 김은호, 김이중, 김이하, 김익완, 김인봉, 김인수, 김인애, 김일섭, 김일웅, 김일재, 김일중, 김재복, 김재민, 김재상, 김재선, 김재용, 김재우, 김재원, 김재주, 김재덕, 김경태, 김경민, 김정범, 김정범, 김정순, 김정애, 김정우, 김정순, 김정우, 김정인, 김경인, 김경태, 김중대, 김중영, 김중민, 김중보, 김중일, 김중택, 김중현, 김중호, 김중환, 김중희, 김중규, 김주영, 김주현, 김주호, 김준우, 김준희, 김중남, 김중미, 김지들, 김지선, 김지수, 김지영, 김지한, 김지혜, 김진, 김진광, 김진모, 김진수, 김진숙, 김진옥, 김진철, 김진택, 김진호, 김진희, 김차경, 김찬, 김창민, 김창수, 김창숙, 김창의, 김철식, 김철이, 김철주, 김철호, 김태균, 김태문, 김태선, 김태연, 김태진, 김태훈, 김필순, 김필용, 김하중, 김하수, 김한균, 김향미, 김혁, 김현래, 김현석, 김현선, 김현수, 김현숙, 김현순, 김현식, 김현우, 김현희,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형계, 김형균, 김형남, 김형동, 김형모, 김형석, 김혜란, 김혜민, 김혜민, 김혜수, 김혜순, 김혜영, 김혜은, 김호경, 김호중, 김호현, 김홍선, 김홍성, 김황경산, 김호, 김호근, 김호문, 김호준, 김홍섭, 김희서, 김희순, 김희영, 김희윤, 김희정, 김희주, 김희지, 김희진, 김희찬, 까야아, 나도연, 나명주, 나상윤, 나승규, 나애경, 나영, 나일웅, 나지현, 나해나, 나현선, 나현필, 나효우, 남가현, 남구현, 남문우, 남미옥, 남병준, 남소라, 남영란, 남영애, 남용, 남재영, 남춘미, 남행희, 남현영, 남현우, 노건희, 노기호, 노미경, 노세규, 노수안, 노수희, 노영수, 노옥희, 노우정, 노정현, 노중화, 노진영, 노창섭, 노충관, 노혜령, 누릉지, 누리, 대각, 덩야핑, 도상록, 도철, 두리공강, 두인, 량희, 류경완, 류경희, 류광희, 류상동, 류은숙, 류재옥, 류정애, 류진춘, 류호진, 림구호, 림보, 마상영, 망보영, 명숙, 모은주, 목정윤, 문건영, 문경미, 문경희, 문길주, 문미정, 문박삼, 문석호, 문성근, 문수영, 문은영, 문종찬, 문종택, 문지혜, 문현균, 미류, 미주, 민기현, 민만기, 민병수, 민선, 민소진, 민순옥, 민영, 민중당, 민혜경, 박근형, 박경석, 박경애, 박경준, 박계현, 박광채, 박근창, 박금순, 박기용, 박남희, 박누리, 박대수, 박동철, 박두환, 박래균, 박영기, 박영선, 박영애, 박영자, 박영화, 박영훈, 박무영, 박문수, 박문순, 박미경, 박미라, 박미리, 박미선, 박미순, 박미정, 박민우, 박민하, 박민혁, 박민호, 박병기, 박봉자, 박봉자, 박봉정숙, 박상근, 박상민, 박상욱, 박상은, 박상헌, 박석분, 박석운, 박선영, 박신혜, 박성순, 박성중, 박성철, 박성호, 박세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현, 박소희, 박소성, 박소애, 박소우, 박순철, 박순혁, 박순희, 박승렬, 박승자, 박승호, 박시내, 박시동, 박신안, 박신호, 박신희, 박애경, 박양희, 박여라, 박영대, 박영락, 박영미, 박영아, 박영인, 박예나, 박예담, 박예안, 박예준, 박오숙, 박육기, 박육주, 박요한, 박용균, 박용대, 박용범, 박용현, 박우옥, 박운, 박원일, 박원중, 박윤수, 박윤숙, 박은성, 박은정, 박은주, 박이선, 박이은실, 박인기, 박인동, 박인숙, 박인조, 박인당, 박장용, 박재근, 박재만, 박재범, 박재승, 박재현, 박재형, 박적옥, 박적환, 박적, 박정민, 박정선, 박정숙, 박정애, 박정열, 박정은, 박정현, 박정호, 박정화, 박정훈, 박중배, 박중선, 박중철, 박중택, 박주미, 박주철, 박준도, 박준모, 박준철, 박준하, 박준호, 박준환, 박지아, 박지영, 박지호, 박진, 박진우, 박진희, 박찬규, 박찬성부산, 박찬용, 박찬중, 박창호, 박채민, 박철균, 박철우, 박철주, 박태식, 박한기, 박한서, 박한희, 박해영, 박행란, 박행란, 박향주, 박현구, 박현상, 박현서, 박혜성, 박혜영, 박홍근, 박효서, 박효정, 박효주, 박희승, 박희진, 방엄선, 방여원, 방은미, 방혜린, 배경진, 배기남, 배미영, 배보람, 배서영, 배성민, 배소영, 배예주, 배운호, 배은심, 배진경, 백경진, 백나미, 백대진, 백동규, 백미, 백성준, 백승현, 백일자, 백종성, 백주선, 백주영, 백철현, 백현국, 백형근, 법상, 법인, 법인스님, 변상훈, 변성호, 변연식, 변재승, 변진, 변혜진, 보리, 보영, 복성경, 붓꽃장학회, 봉혜영, 부경, 서광필용, 사월, 서광태, 서승술, 서근영, 서기봉, 서녕, 서미영, 서복경, 서상균, 서서민, 서수경, 서쌍용, 서영국, 서영섭, 서영주, 서영주, 서영준, 서원, 서윤근, 서재현, 서정만, 서정민갑, 서정호, 서준환, 서주호, 서지연, 서창호, 서채완, 서춘이, 서태성, 서혜숙, 서희원, 선지현, 설혜영, 성은주, 성재상, 성정수, 세주, 소라미, '소성옥(소주, 곱단)', 소성호, 소순과, 소영재, 소희주, 손경미, 손덕헌, 손민경, 손솔, 손영희, 손월자, 손은화, 손준호, 손지현, 손해용, 손형림, 손호만, 송경옥, 송경용, 송기호, 송란희, 송문식, 송미란, 송미연, 송미옥, 송민경, 송보석, 송복남, 송봉준, 송상교, 송수연, 송연숙, 송용범, 송원천, 송윤남, 송윤정, 송은자, 송은희, 송이경, 송인영, 송일호, 송재혁, 송지현, 송치용, 송한수, 송해진, 송한지, 송호영, 송홍준, 송희홍, 시경, 시이석, 신고은, 신광익, 신규철, 신근철, 신길용, 신나래, 신동은, 신동화, 신문용, 신미지, 신민주, 신상숙, 신선식, 신성남, 신성호, 신순애, 신순영, 신순임, 신승옥, 신승철, 신아롱, 신엘라, 신예지, 신용하, 신우용, 신운, 신유아, 신윤실, 신은미, 신인미, 신장식, 신정범, 신정섭, 신정아, 신정임, 신종재, 신종철, 신주성, 신주영, 신지연, 신지예, 신창식, 신철, 신현구, 신현우, 신현우, 신현우, 신현성, 신희경, 신희정, 심규협, 심상범, 심상정, 심성훈, 심유리, 심인호, 심재옥, 심재환, 심진호, 심정보, 심홍보, 심한누리, 심해인, 심희준, 아사, 아인묘량, 안동수, 안만철, 안병옥, 안병용, 안병호, 안봉환, 안상기, 안선경, 안선미, 안선우, 안선태, 안선희, 안성민, 안성식, 안순애, 안순일, 안윤희, 안은정, 안재범, 안재형, 안중호, 안주용, 안중선, 안지섭, 안지중, 안진걸, 안현신, 안현주, 안홍철, 양고은, 양규서, 양기용, 양동규, 양문령, 양병진, 양복순, 양서영, 양성영, 양성윤, 양성일, 양순금, 양여옥, 양영조, 양은정, 양이원영, 양이현경, 양제희, 양진, 양창권, 양창아, 양태조, 양호영, 양홍석, 양희철, 어쓰, 엄경애, 엄기한, 엄도영, 엄선미, 엄영숙, 엄윤찬, 엄은희, 엄정애, 엄진경, 여름, 여름순, 여영국, 여인두, 여인철, 여진호, 여혜숙, 연미영, 엄성태, 엄승연, 엄종윤, 오가원, 오경진, 오경택, 오늘이, 오동진, 오명희, 오미환, 오민애, 오병윤, 오병환, 오상봉, 오상열, 오석순, 오성희, 오세범, 오세연, 오세일, 오세중, 오수진, 오영일, 오영주, 오완근, 오원희, 오인환, 오재수, 오정화, 오준석, 오준호, 오춘상, 오하나, 오현정, 오혜란, 육세진, 왕인순, 율주, 율혜량, 우담, 우문숙, 우석균, 우선경, 우영국, 우영준, 우정민, 우정원, 우종갑, 우종숙, 유지숙, 유연형, 우희정, 우희중, 원영희, 원용진, 원용철, 원진아, 율연, 위은진, 위정량, 유경근, 유경석, 유경희, 유광석, 유금분, 유동숙, 유영희, 유문철, 유선희, 유세은(이아란), 유엄, 유영숙, 유영진, 유재동, 유재춘, 유정이, 유정임, 유정혜, 유제경, 유주영, 유지연, 유진기, 유진아, 유진영, 유찬중, 유해중, 유현미, 유현주, 유하득, 유화영, 유홍희, 윤희, 윤희중, 육기열, 윤건희, 윤경희, 윤금순, 윤기돈, 윤남용, 윤대영, 윤영희, 윤미향, 윤민철, 윤민호, 윤복현, 윤선주, 윤성노, 윤성의, 윤소영, 윤소윤, 윤소하, 윤수근, 윤애숙, 윤영미, 윤영주, 윤영희, 윤옥희, 윤용배, 윤재실, 윤정렬, 윤정숙, 윤정원, 윤종훈, 윤종희, 윤준하, 윤지선, 윤진희, 윤차경, 윤대현, 윤한용, 윤현수, 윤호숙, 은영지, 은주, 은혜진, 이가영, 이갑인, 이강훈, 이강숙, 이건민, 이건진, 이경덕, 이경래, 이경묵, 이경민, 이경수, 이경숙, 이경원, 이경자, 이경재, 이경준, 이경호, 이경희, 이계정, 이교은, 이광국, 이광석, 이광수, 이광혁, 이광호, 이교영, 이규동, 이규연, 이균호, 이근미, 이근재, 이기만, 이기묘, 이기원, 이기중, 이남수, 이남신, 이남주, 이대열, 이대택, 이덕기, 이덕우, 이덕재, 이도훈, 이도흠, 이동근, 이동기, 이동연, 이동익, 이동준, 이동환, 이동훈, 이동희, 이두찬, 이덕우, 이득재, 이명옥, 이명주, 이명희, 이무구, 이미경, 이미선, 이미숙, 이미애, 이미연, 이미영, 이미정, 이미진, 이미현, 이민걸, 이민숙, 이민영, 이민철, 이백윤, 이병도, 이병란, 이병무, 이병인, 이병주, 이병진, 이병훈, 이보경, 이보라, 이보라미, 이빈파, 이상규, 이상길, 이상덕, 이상수, 이상영, 이상윤, 이상준, 이상필,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서영, 이석문, 이석행, 이선민, 이선복, 이선영, 이선용, 이선일, 이선임, 이선희, 이성경, 이성원, 이성복, 이성수, 이성원, 이성현, 이성호, 이세나, 이소소, 이소아, 이소정,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수호, 이수희, 이숙희, 이승숙, 이승우, 이승진, 이승철, 이승현, 이승현, 이승훈, 이승희, 이시백, 이시울, 이애향, 이양수, 이연희, 이영기, 이영덕, 이영미, 이영석, 이영선, 이영실, 이영아, 이영은, 이영일, 이영희, 이용관, 이용길, 이용우, 이원, 이원경, 이원재, 이원정, 이원호, 이우댕, 이우리, 이유미, 이유진, 이윤나, 이윤덕희, 이윤주, 이윤진, 이은미, 이은생, 이은순,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이을재, 이안섭, 이인원, 이인자, 이인주, 이장수, 이재광, 이재교, 이재근, 이재선, 이재영, 이재정, 이재현, 이재호, 이젊은, 이정근, 이정미, 이정숙, 이정아, 이정연, 이정원, 이정의, 이정민, 이정태, 이정현, 이정호, 이정화, 이정희, 이재형, 이조은, 이종란, 이종명, 이종문, 이종열, 이종옥, 이종원, 이종임, 이종호, 이종훈, 이주남, 이주니, 이주승, 이주연, 이주영, 이주용, 이주하, 이주형, 이주희, 이준혁, 이준희, 이준원, 이지민, 이지성, 이지우, 이지은, 이진성, 이진아, 이진영, 이진택, 이진휴, 이진희, 이찬교, 이찬진, 이창욱, 이창훈, 이천동, 이철순, 이충각, 이춘선, 이충현, 이탁근, 이태선, 이태호, 이하나, 이하림, 이하나, 이한빈, 이한선, 이한솔, 이해송, 이혜영, 이해자, 이향춘, 이현규, 이현아, 이현정, 이현주, 이현준, 이현구, 이형섭, 이형철, 이혜숙, 이혜원, 이혜정, 이혜진, 이호성, 이호영, 이홍우, 이환춘, 이환희, 이호상, 이희선, 이희성, 인애, 임경옥, 임기홍, 임득근, 임미라, 임미숙, 임미정, 임보라, 임상민, 임상열, 임상혁, 임상호, 임선화, 임선희, 임섭, 임성호, 임순혜, 임영상, 임영순, 임우정, 임은빈, 임인숙, 임재근, 임정현, 임정희, 임종완, 임지봉, 임지수, 임진모, 임재일, 임태훈, 임한세, 임한솔, 임화수, 장경옥, 장기용, 장남수, 장동규, 장동철, 장동원, 장명진, 장문규, 장미정, 장범시, 장범식, 장범, 장상화, 장세용, 장수경, 장수진, 장순향, 장시정, 장연주, 장영달, 장예정, 장우식, 장윤정, 장을녀, 장인하, 장일수, 장재학, 장정현, 장준석, 장지철, 장지화, 장진영, 장태수, 장혜경, 장화동, 장환, 장훈, 전규석, 전두선, 전미희, 전민희, 전민희, 전병영, 전병준, 전복철, 전성호, 전성환, 전여울, 전여진, 전연옥, 전은경, 전인숙, 전인표, 전장호, 전재민, 전정환, 전주희, 전지윤, 전진택, 전진한, 전태상, 전택기, 전현덕, 전형배, 전혜원, 전효식, 전효준, 점종배, 정강자, 정경애, 정경영, 정경화, 정고은, 정기영, 정나위, 정동옥, 정동현, 정동훈, 정들레, 정명자, 정문주, 정미경, 정민경, 정민승, 정민혁, 정법채, 정병찬, 정부자, 정상철, 정석, 정석철, 정석화, 정선홍, 정성옥, 정성철, 정성화, 정성훈, 정세경, 정세영, 정세환, 정소연, 정승도, 정수연, 정수용, 정순희, 정슬기, 정승원, 정승철, 정승화, 정시영, 정애정, 정연순, 정연용, 정연우, 정연홍, 정영미, 정영섭, 정영은, 정영아, 정영주, 정영훈, 정용선, 정용옥, 정용철, 정우

준, 정우철, 정원옥, 정원현, 정유미, 정유진, 정윤성, 정은아, 정은영, 정은희, 정인길, 정재민, 정재연, 정재우, 정정원, 정정은, 정정훈, 정중성, 정중훈, 정주연(루트), 정지선, 정지숙,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진구, 정진두, 정진우, 정진주, 정찬남, 정춘호, 정태영, 정태홍, 정평ભ, 정한석, 정해순, 정현우, 정현정, 정형진, 정형원, 정형주, 정혜선, 정혜원, 정혜원, 정춘근, 정화, 정희섭, 정희성, 정희춘택, 제미애, 제정남, 제보미, 조경훈, 조계성, 조고은, 조규석, 조기두, 조기홍, 조남덕, 조남수, 조덕휘, 조문돈, 조문희, 조미연, 조미혜, 조민경, 조병준, 조병하, 조석현, 조선희, 조성봉, 조성식, 조성우, 조성일, 조성천, 조성훈, 조승규, 조아라, 조영건, 조영관, 조영래, 조영숙, 조영신, 조영정, 조영호, 조영희, 조용환, 조원호, 조우리, 조은숙, 조이슬, 조장우, 조재희, 조정민, 조정삼, 조정훈, 조준연, 조지훈, 조진희, 조찬철, 조창수, 조철식, 조태성, 조하무, 조한철, 조현, 조현민, 조현수, 조현철, 조형수, 조형일, 조혜숙, 조혜연, 조혜영, 조화영, 조효동, 조홍수, 조희주, 주장원, 주기철, 주숙경, 주영, 주은경, 주인구, 주정현, 주재준, 주형민, 주형우, 주희준, 준오, 지몽, 지민주, 지상규, 지상훈, 지안, 지오, 지은배, 지은희, 진광수, 진방주, 진상경, 진수영, 진은주, 진인태, 차유정, 차은정, 차현호, 채민석, 채진호, 채훈섭, 천기창, 천낙봉, 천웅소, 천추희, 천지선, 최강현, 최근희, 최경란, 최경미, 최경애, 최경은, 최규진, 최금옥, 최기석, 최기수, 최나눔, 최나영, 최덕헌, 최두순, 최명원, 최문원, 최미경, 최미영, 최미진, 최민하, 최병모, 최병선, 최보람, 최사묵, 최상준, 최상훈, 최석근, 최석훈, 최승규, 최성용, 최성호, 최성희, 최세정, 최수미, 최순옥, 최순일, 최순화, 최승현, 최승환, 최시문, 최신현, 최연, 최영심, 최영주, 최영준, 최영진, 최예륜, 최용규, 최용근, 최원녕, 최유미, 최윤희, 최은민, 최은수, 최은실, 최은아, 최은예, 최재숙, 최재혁, 최재홍, 최정규, 최정옥, 최정환, 최준연, 최주희, 최준영, 최준호, 최지순, 최지영, 최지희, 최진아, 최진옥, 최진일, 최창연, 최태섭, 최창국, 최현미, 최현정, 최현주, 최형숙, 최효선, 최효성, 최효재, 최희경, 최희정, 추혜선, 클레어, 함, 탁무권, 파우스티나, 편경희, 편재승, 편재문, 피광복, 하계현, 하성권, 하승수, 하원오, 하은, 하인호, 하정호, 하준태, 하태훈, 한경례, 한경아, 한경준, 한광희, 한국영, 한규은, 한금희, 한기명, 한린권, 한만승, 한영희, 한민정, 한상훈, 한석봉, 한석중, 한석호, 한석희, 한선범, 한선희, 한성찬, 한세창, 한수, 한솔이네, 한승아, 한영명, 한영선, 한유미, 한인임, 한지환, 한정우, 한주영, 한지훈, 한진, 한창민, 한충묵, 한향주, 한현, 한혜경, 한홍덕, 함보현, 함수연, 함수현, 함은주, 함형재, 허상수, 허승은, 허영구, 허영주, 허옥희, 허윤민, 허찬영, 허창영, 허필두, 허혜윤, 현린, 현무환, 현미향, 현성, 현재순, 현정민, 현진희, 혜등, 혜문, 혜찬스님, 홍경희, 홍기용, 홍기정, 홍미희, 홍성규, 홍순창, 홍승봉, 홍승현, 홍영미, 홍영주, 홍원기, 홍윤경, 홍이승권, 홍재준, 홍재현, 홍정훈, 홍종국, 홍준호, 홍창익, 홍태화, 홍현진, 홍혜성, 홍휘은, 황경순, 황경의, 황덕훈, 황미정, 황보경, 황상기, 황선자, 황수영, 황순규, 황순영, 황연재, 황영애, 황윤미, 황은권, 황의대, 황인철, 황재영, 황종원, 황차은, 황찬익, 황호인, Hee Chun Kang (총 1947명)



“

청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노조에 가입해서 부당한 것을 꼭 싸워서 자기 권리를 찾게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리를 찾아야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용군이처럼 그렇게 될까봐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위험하면 일하지 말고 정당한 것을 위해 싸워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2월 7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김미숙 님

”